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노윤구¹, 이외선^{2*}

¹국립창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Ethnocultural Empath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Yoon Goo Noh¹, Oi Sun Lee^{2*}

¹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Assistant professor,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C시의 3개 간호학과 학생 164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였다.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 t-test, one-way ANOVA, 피어슨 상관관계수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수용성은 정서적 공감($r=.56, p<.001$), 인지적 공감($r=.40, p<.001$), 다문화접촉경험($r=.16, p=.040$)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3.7%로 나타났다($F=42.47, p<.001$). 본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다문화접촉경험,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 정서적 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and ethnocultural empathy on multicultural acceptance in nursing students. Participants were nursing students in 3 universities in C cit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5 to December 20, 2017.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3.0. It was found that: (a) multicultural acceptabil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empathy($r=.56, <.001$), cognitive empathy($r=.40, <.001$), and experience of multicultural contact($r=.16, p=.040$); (b)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emotional empathy and cognitive empathy with 37.3% explanatory power. This study shows that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have positive effect on multicultural acceptance. This result may be useful in developing new strategies for enhancing multicultural acceptanc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nce, Emotional empath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결혼, 취업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Corresponding Author : Lee Oi Sun(leeosun@daum.net)

Received August 30,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22,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은 2007년 100만 명을 넘기고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었으며 2021년에는 30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1]. 국내의 외국인주민들은 힘든 육체노동으로 높은 근로격계 질환과 위장관계 질환, 모성보호와 산전산후관리의 취약성, 한국생활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의 경험으로 의료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국내 인구변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간호 대상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다문화 이주민들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간호는 필수적인 것으로, 개인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간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호사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 신념, 습관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는 환자들의 간호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3].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다양한 구성원이 조화로운 공존을 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뿐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수인 거주민의 다문화에 수용적인 인식과 태도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4]. 이렇듯 다문화 대상자의 증가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간호를 위한 수용적이고 편견 없는 인식과 태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태도[5]이며, 보다 적극적인 측면으로 주류인 거주민이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응 능력이라고 하였다[6]. 다문화 수용성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능력이므로 사회 구성원인 간호대학생도 졸업 후 다문화 간호를 담당하게 될 예비의료인으로써 간호전문가의 자질인 다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수용적인 태도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자 자신과 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으로, 타인이 느끼는 것을 살피고 이해하는 공감을 문화적 차이가 있는 곳에 적용하였을 때의 소통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 요소는 주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감정을 살피고 그들의 감정 표현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한다[7]. 초등학교와 대학생

의 공감능력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8, 9],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교육 이해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0],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11].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는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적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문화접촉경험이란 다문화를 가진 사람이나 다문화가정을 비형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접촉한 경험을 의미하는데, 가족, 친구, 미디어, 해외여행 등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이뤄지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다[12].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국인과의 접촉을 한 경우는 접촉이 없는 경우보다 타문화권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거부감이 적고 수용적이라고 하였다[13].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한 경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고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아지므로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다문화 접촉경험은 중요한 선행요인을 알 수 있다[9, 14, 15].

2006년 우리나라가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이후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16], 대다수인 거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인식과 태도를 제고할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이주민이라는 간호대상자의 등장과 이들의 의료이용률의 증가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간호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효과 확인[17]과, 사회적 거리감과 의 관계를 탐색한 것[14, 18] 등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의 선행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미래 다문화간호를 책임질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공감,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2)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한다.
- 3)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확인한다.
- 4)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접촉경험과 다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C시 3개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수는 통계적 검정력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7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19]. 회귀분석 검정을 위하여 유의수준(α)=.05, 검정력($1-\beta$)=.95, 효과 크기(ES)=.15로 하였을 때 160명이 제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면 본 연구 대상자수 180명은 필요한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한 18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누락분과 불완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총 16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다문화접촉경험

Ward[20]가 개발한 비형식적 경험 척도(Informal experience)인 다문화접촉경험 척도를 Lee[12]이 사용한 직접접촉경험 9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가족과 친구관계의 직접적인 경험 9문항으로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 처리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총점이 높은 경우 다문화접촉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Noh와 Lee[14]의 연구에서 직접접촉경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71 이었다.

2.3.2 문화적 공감

Wang 등[7]이 개발한 문화적 공감 척도(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SEE)를 Kim[21]이 번역하고 요인분석한 2요인 21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2개 요인은 자신과는 다른 인종적 집단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다른 문화적 집단의 사람들이 표출하는 감정적 표현에 대해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능력인 정서적 공감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문화적 공감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Kim[21]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0 이었으며 정서적 공감 .854, 인지적 공감 .854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 공감 신뢰도는 Cronbach's α =.888 이며, 정서적 공감 .830, 인지적 공감 .881 이었다.

2.3.3 다문화수용성

Ahn[5]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Min 등[22]이 청소년에 맞게 재구성한 다문화수용성 척도(KMCI-A) 34문항으로 구한 점수를 말한다.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다문화수용성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척도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Noh와 Lee[1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24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2 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자와 연구원이 3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며, 연구자가 학생들의 강의실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자가 보고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집

하였다. 회수된 응답지 중 누락분과 불완전한 자료 16부를 제외한 16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5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자료수집 전에 연구자와 연구원이 학생들의 강의실이나 집단회 장소로 찾아가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자의로 연구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고 서면설명문으로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참여 동의서와 함께 본 연구자와 연구원이 수거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 정도는 기술통계로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 test 로 사후 분석하였다.
- 다문화접촉경험, 다문화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하였다.
- 다문화접촉경험과 다문화 공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다문화접촉경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수용성 정도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다문화접촉경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살펴보면, 다문화접촉경험은 9점 만점에 총점 2.77(±2.07)점 이었고, 문화적 공감은 5점 척도에 평균 3.74(±0.43)점 이었으며, 하위항목으로 정서적 공감 4.01(±0.48)점, 인지적 공감 3.50(±0.54)점이었다. 다문화수용성은 5점 척도에 평균 3.64(±0.43)점으로 Table 1과 같다.

Table 1. Levels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Variables	Factors	Min	Max	Mean±SD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0.00	9.00	2.77±2.07
Ethn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2.90	5.00	4.01±0.48
	Cognitive empathy	1.82	5.00	3.50±0.54
	Total	2.67	5.00	3.74±0.43
Multicultural acceptance		2.74	4.79	3.64±0.43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접촉 경험,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 차이

3.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91.5%), 1,2학년인 저학년이 91명으로 55.5%였다. 실습경험은 없는 경우가 85명(51.8%)이었으며, 연령은 21~22세가 72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성적은 중간수준이라는 응답이 101명(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2.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접촉경험,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접촉경험은 실습 경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접촉경험이 높았다($t=2.19, p=.030$). 문화적 공감과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은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문화적 공감($t=-2.46, p=.015$)과 인지적 공감($t=-2.58, p=.01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은 차이가 없었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3.3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문화접촉경험은 문화적 공감과 정적 상관관계($r=.165, p=.035$)이었으며,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과의 정적 상관관계($r=.173, p=.027$)였다.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정적 상관관계였다($r=.161, p=.040$).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공감과 정적 상관관계($r=.55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r=.563, p<.001$)과 인지적 공감과($r=.400, p<.001$)도 정적

Table 2. Differences i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64)

Characteristics	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Multicultural acceptance				
		Mean±SD	t/F (p)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Total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ender	Male	14(8.5)	2.64±2.34	-0.24	3.82±0.62	-1.49	3.14±0.42	-2.58	3.47±0.42	-2.46	3.46±0.39	-1.64
	Female	150(91.5)	2.78±2.05	(.805)	4.03±0.47	(.137)	3.53±0.54	(.011)	3.77±0.37	(.015)	3.65±0.43	(.103)
Grade	Junior	91(55.5)	2.51±2.05	-1.788	3.99±0.54	-5.72	3.47±0.59	-.634	3.72±0.48	-.713	3.64±0.44	.166
	Senior	73(44.5)	3.09±2.07	(.076)	4.03±0.40	(.568)	3.53±0.47	(.527)	3.77±0.37	(.477)	3.63±0.41	(.868)
Practical experience	Yes	79(48.2)	3.13±2.10	2.19	4.02±0.42	0.28	3.53±0.49	0.83	3.77±0.39	0.69	3.64±0.44	-0.04
	No	85(51.8)	2.43±2.00	(.030)	4.00±0.54	(.774)	3.46±0.58	(.404)	3.72±0.47	(.489)	3.64±0.42	(.962)
Age (yr)	19-20	30(18.3)	2.63±1.92		4.09±0.51		3.62±0.59		3.84±0.49		3.70±0.46	
	21-22	72(43.9)	2.59±2.14	0.87	4.04±0.52	1.16	3.52±0.57	1.43	3.76±0.46	1.80	3.63±0.43	0.43
	≥23	62(37.8)	3.04±2.06	(.421)	3.94±0.41	(.315)	3.42±0.46	(.241)	3.67±0.37	(.168)	3.61±0.41	(.646)
School record	Low	34(20.7)	2.82±2.02		4.00±0.55		3.48±0.58		3.72±0.49		3.56±0.44	
	Medium	101(61.6)	2.54±1.99	2.53	4.04±0.46	0.90	3.46±0.55	1.48	3.74±0.43	0.10	3.68±0.42	1.18
	High	29(17.7)	3.51±2.30	(.083)	3.91±0.46	(.407)	3.65±0.43	(.229)	3.77±0.38	(.900)	3.58±0.41	(.309)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Variables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Ethn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Total
Ethno-cultural empathy	Emotional empathy	.101 (.199)		
	Cognitive empathy	.173* (.027)	.440** (.000)	
	Total	.165* (.035)	.813** (.000)	.880** (.000)
Multicultural acceptance		.161* (.040)	.563** (.000)	.556** (.000)

3.4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변수로 다문화접촉경험,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값은 1.822로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806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VIF는 1.240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투입된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서적 공감($\beta=0.48, p<.001$)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인지적 공감($\beta=0.19, p=.009$)이었다.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긍정적인 영

향요인이었으며, 이들 변수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설명력은 33.7%였다($F=42.47, p<.001$). 결과는 Table 4과 같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Multicultural acceptance (N=16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1	.24		5.80	.000
Emotional empathy	0.42	.06	0.48	6.75	.000
Cognitive empathy	0.15	.05	0.19	2.66	.009

F=42.47, p<.001, Adj-R²=.337
Dubrin-Watson=1.822, Tolerance=.806, VIF=1.240

4. 논의

본 연구에서 문화적 공감 평균은 3.7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3.31점(합 점수 102.5점을 평균으로 변환)[23]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공감능력 3.76점과 3.85점[24]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에서 다문화적 집단 사람들의 감정 표현에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정서적 공감은 4.01점이었으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은 3.50점이었다. 한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동정하는 것으로 정의한 공감에 대한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공감이 3.60점으로 인지적 공감 3.5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25]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은 정서적 공감이 인지적 공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

대학생은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인지적 반응보다 정서적 반응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 즉 타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는 타문화 사람들의 감정표현에 더 잘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다문화접촉경험은 2.77점이었는데, 간호대학생의 직접접촉경험이 2.53점이고, 직접접촉경과 간접경험을 합한 것이 6.27점[14]인 것으로 보아 간호대학생은 직접접촉경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은 평균 3.64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3.48점[17]과 3.72점[14] 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공감이었다. 정서적 공감은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으로서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으나 문화적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이 양의 상관인 것[11]은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문화적 공감능력은 다문화 교육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0],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생각하거나 동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공감능력은 문화적 수용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26], 대학생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요소가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9]은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을 고려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능력으로[21],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언행이나 같은 사람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그들의 답답한 입장에 대하여 생각하였을 때 감정을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다문화에 대한 풍부한 감정을 가진 사람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내가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처지에서 상황을 보려고 하는 공감적인 태도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은 앞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진 대상자를 간호 할 상황에 자주 직면할 것이므로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인지적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었다. 인지적 공감은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으로서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논의에 제한이 있으나 대학생의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요소가 다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9]은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21]. 인지적 공감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고정관념, 차별, 제도적 억압, 그들이 느끼는 부당한 대우나 불편함을 이해하는 정도로 다문화인들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문화인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태도는 다문화수용성을 위한 기본 자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은 다문화 간호를 위하여 인지적 공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공감훈련에서 여학생들은 공감훈련 과정을 더 잘 이용하였으며 훈련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은 지지적인 관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알려져 왔다. 공감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문가에게 환자의 건강을 개선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하므로 의료전문가들은 환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감을 배워야 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였다. 공감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므로 간호 교육과정에 공감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27].

다문화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직·간접접촉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선행연구[9, 14]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접촉경험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주변에 친구, 아는 사람, 친척이나 가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접접촉경험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와는 반대로 주류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의 비정형적인 접촉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14]고 하였으므로 다문화접촉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후속 연구로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는 의료 전문가로서 국민건강의 최적화라는 중요한 목표아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은 문화, 정치, 경제, 환경, 행동 및 심리 등의 여

러 요인을 확인해야 한다. 간호에서의 다문화적 접근 방식은 다문화 환경에서 간호를 수행하고 다른 문화권의 환자 요구를 충족시키므로 간호 교육, 정책 및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28]. 문화 다양성이 간호 및 환자 안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간호사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간호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간호사들은 다문화 환경에서 문화적 역량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환자의 문화적, 정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높은 수준의 간호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였다[29]. 이는 다문화를 위한 간호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간호사들의 역량 뿐 아니라 환자안전에도 위협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간호대학생들은 다문화 간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래의 다문화 간호를 위하여 간호대학생은 다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때 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하므로, 다문화에 수용적인 태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에서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서적 공감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므로 이를 위한 다양한 실천적 대안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접촉경험과 문화적 공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문화접촉경험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하여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도모하기 위한 공감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등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

인을 확인한 것이므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공감 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2016). *Statistical yearbook of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in 2015*.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Justice.
- [2]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2009). *Korean society and migrant health(Foreign Migrant Workers Medical White Paper II)*. Seoul, Korea: A young Doctor.
- [3] M. M. Maier-Lorentz. (2008). Transcultural nursing: its importance in nursing practice, *Journal of Cultural Diversity*, 15(1), 37-43.
- [4] M. J. Kim & K. E. Kim. (2018).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nce research trends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1(1), 1-27.
- [5] S. S. Ahn, M. S. Min, Y. S. Kim, M. J. Lee & G. M. Kim. (2012). *National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esearch Research report 2012-02, January Report No.11-1383000-000245-01*. Seoul, Korea : Women's Policy Institute.
- [6] M. J. Kim & O. B. Chung.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7(4), 69-88.
- [7] Y. W. Wang, M. M. Davidson, O. F. Yakushko, H. B. Savoy, J. A. Tan. & J. K. Bleier. (2003).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221-234.
- [8] J. A. Lee & Y. J. Lee. (2016).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empathic ability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6), 73-91.
- [9] I. S. Kim & S. J. Lee. (201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ale/femal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emphatic ability, multi-cultural experience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1), 1-32.
- [10] J. Y. Park & K. J. Cho. (2016). Empathy and cultural impact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understanding attitude, *Journal of the Korea*

-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0), 439-448.
- [11] S. H. Park & J. H. Yu. (2017).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 on empathy in adolesc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DOI : <http://doi.org/10.14400/JDC.2017.15.4.499>
- [12] S. Y. Lee. (2013). *A sense of social distance among the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y. :Focused o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13] G. W. Allport. (1993). *The nature of prejudice*. W. Y. Lee. translators. New York, NY: Perseus Books Publishing
- [14] Y. G. Noh & O. S. Lee. (2018). Influence of multicultural contact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87-195. DOI : <http://doi.org/10.14400/JDC.2018.16.1.187>
- [15] S. Y. Kim. (2016). The impact of self efficacy and multicultur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social welfare on acceptance of multiculture.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9(2), 201-229.
- [16] Y. S. Lee. (2016).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acceptance, why and how to do it?.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6(1), 1-26.
- [17] M. J. Chae, J. I. Kim & J. H. Lee. (2015).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1(3), 373-381. DOI : <http://doi.org/10.5977/jkasne.2015.21.3.373>
- [18] I. S. Lee. & J. Y. Cho. (2015). A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ocial dista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5(1), 1-9.
- [1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20] J. M. Ward. (1996). *The relationship of preservice teachers' cross-cultural experiences with their beliefs about teaching divers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sas state University, Manhattan, KS.
- [21] J. Y. Kim (2013). *A study on color-blind racial attitudes and cultural competence of service providers in multicultural settings :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cultural empathy and multicultural trai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 [22] M. S. Min, S. S. Ahn, Y. S. Kim, B. Y. Son & M. J. Lee. (2012). *Study on adolescen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esearch report 2012-51, January. Report No.: 11-1383000-000368-01*. Seoul, Korea : Women 's Policy Institute.
- [23] H. J. Park & N. H. Kim (2017).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empath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487-498. DOI : <http://doi.org/10.14257/AJMAHS.2017.04.09>
- [24] E. H. Peek & C. S. Park. (2013). Effects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on the Cultural Competence, Empathy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690-696. DOI : <https://doi.org/10.4040/jkan.2013.43.5.690>
- [25] S. Y. Yang, H. N. Lim & J. H. Lee (2013).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183-193. DOI :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26] E. J. Song, Y. K. Yang & S. K. Park (2016). Effects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empathy on cultur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4), 347-355. DOI : <https://doi.org/10.12934/jkpmhn.2016.25.4.347>
- [27] L. Cunico, R. Sartori, O. Marognoli & A. M. Meneghini. (2012). Developing empathy in nursing students: a cohort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1(13-14), 2016-2025. DOI :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2.04105.x>
- [28] A. Pavlakis & I. Leondiou. (2014). Multicultural Nursing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Caring Sciences*, 7(1), 32-37.
- [29] A. F. Almutairi. (2012). *A case study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multicultural nursing workforce on the quality of care and patient safety in a Saudi Arabian hospita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Brisbane, Australia.

노 윤 구(Noh, Yoon Goo)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4년 8월: 경상대학교 간호학석박통합 과정(박사)
- 2015년9월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간호교육, 간호윤리
- E-Mail : ygnoh@hanmail.net

이 의 선(Lee, Oi Sun)

[정회원]



- 1992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01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3년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감성지능, 간호교육, 성인간호
- E-Mail : leeosun@daum.net